강진 가우도 관광지 개발 전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전남경찰, 개발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군청 직원·일간지 기자 입건
군청·지역업체 등 6곳 압수수색…관급계약 관여 의혹도 조사 중

강진 가우도(駕牛島) 관광단지 조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공직자가 인근 지역 부동산에 대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강진군청 비서실 직원 A씨와 지역일간지 기자 B씨 등 2명을 사전에 취득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협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설 명절 지역 내 유력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협의(공직선거법을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 두가지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강진군청 군수 부속실과 지역 업체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우도는 2017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강진 대표 관광지이다.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GFI개발이 지난해 8월 강진 가우도 일원에 3687억 원을 투자, 관광·레저·휴양시설 건설을 목표로 전남도·강진군과 협약을 맺으면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 ㈜GFI개발은 가우도 일대 28만8000㎡에 오는 2024년까지 리조트형 호텔 340실과 풀빌라 118실(단독형34, 테라스형 84실)을 비롯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알파인 코스터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두루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 지난해 8월보다 앞선 지난해 초 가우도 일대에 사업 관련 부지에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역 일간지 주재기자인 B씨도 A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 A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초 매입한 가우도 일대 부동산에 대해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A씨의 비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들이 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투기 이외에 군청 관급계약에 관여했다는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면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대촌중 '아지트프로젝트' 무한상상실·휴게실 개소

대촌중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아지트 프로젝트 사업'(학생중심 공간혁신 프로젝트)을 완공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및 학부모·학생 대표, 지역사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촌중 무한상상실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학교 무한상상실에서 직접 제작한 가구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대촌중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했다.

아지트 프로젝트 사업으로 완성된 휴게실은 냉장고 및 토스트기, 와플팬 등과 음악 감상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 등에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회 및 학부모 독서회 등 학부모 모임에도 휴게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커피머신 등도 갖췄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통사고 예방 반사경 설치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지난 9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경을 설치한 뒤,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모 선정

2023년까지 120억 투입

광주지역에서 상습 침수 지대 중 한 곳인 북구 문흥동 일대가 수해로부터 안전해진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모에서 북구가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우수저류시설은 저지대 침수예방 및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시설로 빗물이 넘쳐 도로,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

이번 대상지는 문흥동 성당 일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20여 대와 도로, 주택, 상가 등 건물 11동의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북구는 올해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오는 2023년까지 국·시비 90억 원 포함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북구는 추가로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5개년 사업에 따라 북구청 사거리, 신안교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지지도 23개월 연속 1위

3월 직무수행 51.9% 지지
학생 건강·학습권 긍정 평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3개월 연속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직선 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21년 3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51.9%의 지지를 얻어 2019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1위를 달렸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중 50%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는 장 교육감이 유일하다. 2위(44.7%)와 차이도 7.2%p에 달했다. 전국 교육감 17명의 평균 지지율은 38.8%다.

이는 전남교육이 2021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교수업 비율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켜나가는 데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전남미래교육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등 미래사회에 대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점도 지지율 1위의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도민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 당장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 중심 교육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구현,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과제를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2021년 3월 정례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 ~ 3월 1일)과 3월(25일~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에 따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광역단체 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5%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스포츠 체험 활동으로 학교폭력 막는다

광주서부교육청·남부서·남구다목적체육관, 고등학생 지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과 광주남부경찰서(서장 조규향), 남구다목적체육관(총괄부장 남동욱)이 함께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번 체험활동은 최근 학폭과 미투가 이슈화 되면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마련된 것이다.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참여 지난 3월 30일부터 농구와 실내축구, 티볼, 배구, 배드민턴, 수영(2주), 피트니스(5주) 등 총 7개 종목에 대한 체험활동을 진행중이다.

서부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학생에게 꿈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편의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남구 소재 아동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 체험활동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주정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때"라며 "이번 사업이 따스하고 올곧은 광주정신을 이어갈 지역 인재 양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